



‘교재 학원직납 근절’ 최선 다할터



한국서점조합연합회 신임회장이 결정되는 52차 정기총회에는 94명의 대의원 중 53명이 투표해 참석했다. 이중 의결권을 넘긴 대의원이 10여명이 넘었음을 감안할 때 한국서련은 이미 대의원들에게서 조차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. 이를 감안한 듯 이 신임회장은 “지방조직 활성화, 분과위원회 등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연합회 활성화와 회원들의 의사반영 폭을 넓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겠다”는 의지를 피력했다.

- 앞으로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계획은.

모든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 할 수는 없을 것이다. 임원진과 논의하고 결정후에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. 많은 사업계획이 있지만 여러 임원진과 우선 순위와 경중을 면밀히 검토하겠다.

- 임원진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는가. 관례에 따르겠지만 다른 방법도 생각중이다.

- ‘출판 및 인쇄진흥법’이 국회에 계류중인데.

전임회장이 추진하던 ‘도서정가제법’ 법제화를 이어 받아 분석하고 검토해 신중하면서도 힘있게 추진하겠다.

- 종로서적이 폐점했는데. 시대흐름에 발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는

교훈을 주었다. 또 재벌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사회에 어떤 병폐를 불러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.

- 교보문고의 부산 진출에 대한 대응방침은.

부산시민연대와 함께 전국적인 범 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교보생명의 부도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강력히 대처 하겠다.

- 학원 직납 근절 대책은.

전국 각 조합의 관심사항이므로 우선 조합별 실태를 파악 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법령이나 규칙 개정을 촉구하고, 학원연합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해결해 가겠다.

- 인터넷 서점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.

“인터넷 서점들도 우리와 같은 서점인 만큼 규칙을 지키면서 공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.”

- 서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.

“우리업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야 한다. 유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. 또 도서유통의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전국 서점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해 각 서점이 현대화 정보화 온라인화 하도록 하겠다.☞

약 력

1957년생

부산 해성문고 개업(1987년)

부산시서점조합 전무(1990년)

한국서점조합연합회 감사(1994년)

부산시서점조합장(2000~)

이용우 기자

<photoyw@print.or.kr>